



20
21

Vol. 10

시사·교양 프로그램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시사·교양 프로그램

06
양적 분석

11
내용 분석




23
나가며

24
체크리스트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기관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 분석 보고서

최근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드라마나 예능의 시청률을 앞질렀다. TV 등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간 시청률 경쟁이 치열해지며 사건·사고 위주의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몰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젠더 이슈'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강한 이슈'로서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성차별에 대한 재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YWCA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은 7월 19일에서 25일에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86편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기간  7월 19일 - 7월 25일 방영분 중 각 1회분 ²	대상  TV ³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86개 프로그램 (표1참조)	모니터 인원  5명
--	--	--

연번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6시 내고향	월-금/18:00
2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토/19:10
3			내고향 스페셜	월-수/17:10
4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월/13:00
5			더 라이브	월-목/22:50
6			동행	토/18:00
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금/10:00
8			사랑의 가족	토/13:10
9			생로병사의 비밀	수/22:00
10			생활의 발견	화-수/01:20
11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토/08:30
12			시사기획 창	일/21:40
13			시사직격	금/22:00
14			신장개업 운동맛집	수/19:40
15			아침마당	월-금/08:25
16			열린채널	수/14:30
17			이산70년기획 나의 살던 고향은	금/13:55, 토/20:05
18			이웃집 찰스	화/19:40
19			재난탈출 생존왕	금/19:40
20			질문하는 기자들 Q	일/22:35
21			한국인의 밥상	목/19:40
22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일/09:10
23			KBS2	2TV 생생정보

1.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5~7%의 안정된 시청률을 올리고, MBC '실화탐사시대'와 SBS '궁금한 이야기 Y'의 시청률은 각각 5~8%, 8~9% 수준이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역시 5% 안팎이다. 최근 MBC '오! 주인님'과 KBS 2TV '이미 테이션' 등 유명 배우와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 드라마가 0%대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하다. 안진용, "꽤 높아진 시사·교양 프로그램... 드라마·예능 시청률 제쳐", 『문화일보』, 2021년 5월 25일

2. 해당 기간 중 방영분이 없는 경우에 한 해 8월 방영분 시청.

3.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번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24	지상파	KBS1	기분 좋은 날	월-금/09:45	
25			TV예술무대	일/01:45	
26			생방송 연금복권 720+	목/19:05	
27			생방송 오늘 아침	월-금/07:50	
28			생방송 오늘 저녁	월-금/18:05	
29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토/20:45	
30			실화탐사대	토/20:50	
31			심야 괴담회	목/22:20	
32			우리말 나들이	월-금/22:55	
33			탐나는 TV	금/12:00	
34			모닝와이드 3부	월-금/07:35	
35			열린TV 시청자 세상	목/10:30	
36		SBS 뉴스토리	토/08:00		
37		SBS 애니갤러리	수/11:00		
38		TV 동물농장	일/09:30		
39		궁금한 이야기 Y	금/20:55		
40		꾸러기 탐구생활	월-화/11:00		
41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목-금/11:30		
42		맨 인 블랙박스	토-일/20:45		
43		살맛나는 오늘	월-수/10:30		
44		생방송 투데이	월-금/18:55		
45		생활의 달인	월/20:55		
46		서바이벌 가족퀴즈쇼 - 퀴즈몬	목/18:00		
47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화/21:00		
48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월-화/11:30		
49		좋은아침	월-금/09:10		
50		톡톡 정보 브런치	금/10:30		
51		JTBC	TV정보쇼 알짜왕	목/09:05	
52			굿모닝 라이프	금/08:10	
53			뉴체인지	수/09:05	
54			다채로운 아침	월/08:10	
55			맛있는 이야기 미라클 푸드	토/08:55	
56			백종원의 국민음식	금/23:00	
57			사연 있는 쌀롱하우스	토/08:00	
58			인생토크쇼 터닝포인트	금/09:05	
59			차이나는 클래스	목/22:30	
60			TV조선	강적들	토/21:00
61				건강면세점	일/10:50
62				글로벌 힐링 101살의 여유	토/09:50
63				기적의 인생	토/11:00
64				내 몸을 살리는 발견 유레카	일/07:30
65				백세누리쇼	수/19:00
66				순간의 선택 골든타임	금/19:00
67				스타다큐 마이웨이	일/19:40
68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금/20:00

연번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69	종합 편성 채널	TV조선	알콩달콩	목/19:00
70			엄마의 봄날	일/08:30
71			팡팡터지는 정보쇼 알맹이	일/21:40
72		채널A	관찰카메라 24	수/20:20
73			닥터 지바고	토/11:10
74			산전수전 여고동창생	일/17:50
75			서민갑부	화/20:10
76			행복한 아침	월-금/07:30
77			황금나침반	화/00:20
78		MBN	골든타임 씨그날	수/20:30
79			나는 자연인이다	수/21:50
80			대한민국 1% 건강청문회	일/20:20
81			사건기록 - 그날의 선택	화/23:00
82			생생 정보마당	월-금/09:30
83			알약방	목/20:30
84			천기누설	금/20:30
85			한번 더 체크타임	월/20:30
86			현장르포 특종세상	목/21:50

[양적 분석]

1 진행자 분석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의 성별을 역할, 연령대, 직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진행자 성비는 여성 129명, 남성 154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주진행자, 부진행자, 리포터, 내레이터⁴ 세분화하여 성별 역할을 살펴본 결과, 부진행자를 제외한 모든 역할에서 남성의 수가 많았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진행자 수는 지난 해 203명에서 283명으로 증가했고, 증가 인원 중 남성 진행자의 수는 49명, 여성 진행자의 수는 31명으로, 남성 진행자가 더 많이 늘었다.

표2 _____ 진행자 성별 역할(2021) (단위: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주진행자	66(23.3%)	72(25.4%)	138(48.7%)
부진행자	20(7.1%)	19(6.7%)	39(13.8%)
리포터	9(3.2%)	14(4.9%)	23(8.1%)
내레이터	26(9.2%)	29(10.3%)	55(19.5%)
기타	8(2.8%)	20(7.1%)	28(9.9%)
합계	129(45.6%)	154(54.4%)	283(100.0%)

표2-1 _____ 진행자 성별 역할(2020년) (단위: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주진행자	59(29.1%)	62(30.5%)	121(59.6%)
부진행자	20(9.9%)	26(12.8%)	46(22.7%)
리포터	9(4.4%)	9(4.4%)	18(8.9%)
기타	10(4.9%)	8(3.9%)	18(8.9%)
합계	98(48.4%)	105(51.6%)	203(100.0%)

진행자에 있어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부분은 연령대이다. 10대, 20대, 30대 진행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지만, 40대 이상부터는 남성 출연자 비율이 높다.

4 _____ 2020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내레이터가 다수 출연한 점을 반영해 진행자에 내레이터 항목을 추가했다.

표3 _____ 진행자 성별 연령대 (단위: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10대 이하	2(0.7%)	0(0.0%)	2(0.7%)
20대	18(6.4%)	4(1.4%)	22(7.8%)
30대	41(14.5%)	28(9.9%)	69(24.4%)
40대	39(13.8%)	45(15.9%)	84(29.7%)
50대	15(5.3%)	37(13.1%)	52(18.4%)
60대 이상	6(2.1%)	13(4.6%)	19(6.7%)
알 수 없음	8(2.9%)	27(9.4%)	35(12.3%)
합계	129(45.7%)	154(54.3%)	283(100.0%)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언론인과 방송인이 진행자로서 많이 선호되고 있었고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 _____ 진행자 성별 직업군 (단위:명)

직업군	방송인	변호인	의사	평론가	진행인	유리사	문화예술인	교육전문가	공무원	군인	학생	스포츠전문가	그외특정분야전문가	유튜버	알수없음	기타	계
여성	46	1	2	0	51	0	3	1	0	0	2	0	0	2	5	16	129
남성	53	1	7	1	48	2	3	1	1	1	0	1	2	2	2	29	154
계	99	2	9	1	99	2	6	2	1	1	2	1	2	4	7	45	283

2 출연자 분석

시사·교양 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출연자 1,347명 중 여성은 635명(47.1%), 남성은 712명(52.9%)으로 나타났다. 고정패널은 여성 36명(2.7%), 남성 60명(4.5%), 1회 패널은 여성 139명(10.3%), 남성 240명(17.8%)으로 모두 약 1.7배 높은 비율로 등장했다. 불특정한 일반인 출연자로 등장하는 비율은 여성이 424명(31.5%), 남성이 383명(28.4%)으로 여성이 1.1배 더 높았다. 주제에 대해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영역에서의 남성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5 출연자 성별 역할 (단위: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고정패널	36(2.7%)	60(4.5%)	96(7.2%)
1회 패널	139(10.3%)	240(17.8%)	379(28.1%)
일반인 출연자	424(31.5%)	383(28.4%)	807(59.9%)
기타	36(2.7%)	29(2.2%)	65(4.9%)
합계	635(47.1%)	712(52.9%)	1,347(100.0%)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출연자는 30대 이상의 연령대에 포진된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대의 성별 격차는 20대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는 여성 85명(13.4%), 남성 54명(7.6%)으로 여성이 1.6배 더 많았고, 40대는 여성 125명(19.7%), 남성 179명(25.1%)으로 남성이 1.4배 더 많았다. 전체 출연자 비율에서 남성이 1.1배 더 높음을 생각할 때 20대의 여성이 1.6배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한 차이이다.

표6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명)

구분	여성(명)	남성(명)	전체(명)
10대 이하	42(6.6%)	46(6.5%)	88(6.5%)
20대	85(13.4%)	54(7.6%)	139(10.3%)
30대	107(16.9%)	111(15.6%)	218(16.2%)
40대	125(19.7%)	179(25.1%)	304(22.6%)
50대	126(19.8%)	160(22.5%)	286(21.2%)
60대 이상	138(21.7%)	134(18.8%)	272(20.2%)
알 수 없음	12(1.9%)	28(3.9%)	40(3.0%)
합계	635(100.0%)	712(100.0%)	1,347(100.0%)

주요 전문직을 살펴보면,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중 남성은 107명, 여성은 55명으로 약 2배 많이 출연했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역할에 남성 출연 빈도가 더 높았다.

표7 출연자 성별 직업군 (단위: 명)

구분	여성(명)	남성(명)	전체(명)
방송인(개그맨/배우/가수/전문 진행자(MC) 등)	70(11.0%)	48(6.7%)	118(8.8%)
모델	1(0.2%)	0(0.0%)	1(0.1%)
법조인(변호사 등)	3(0.5%)	8(1.1%)	11(0.8%)
정치인	4(0.6%)	11(1.5%)	15(1.1%)

구분	여성(명)	남성(명)	전체(명)
의료인(의사 등)	36(5.7%)	70(9.8%)	106(7.9%)
비평가/평론가	4(0.6%)	4(0.6%)	8(0.6%)
언론인(기자, 아나운서 등)	16(2.5%)	29(4.1%)	45(3.3%)
요리사/요리연구가	10(1.6%)	7(1.0%)	17(1.3%)
문화 예술인(작가, 예술가, 음악가, 공예가 등)	23(3.6%)	53(7.4%)	76(5.6%)
교육 전문가(교사, 교수 등)	20(3.1%)	23(3.2%)	43(3.2%)
공무원	3(0.5%)	26(3.7%)	29(2.2%)
농업/어업/화훼업 종사자	27(4.3%)	32(4.5%)	59(4.4%)
군인	1(0.2%)	5(0.7%)	6(0.4%)
학생	33(5.2%)	31(4.4%)	64(4.8%)
회사원	17(2.7%)	25(3.5%)	42(3.1%)
주부	14(2.2%)	1(0.1%)	15(1.1%)
자영업자/영업직	60(9.4%)	57(8.0%)	117(8.7%)
스포츠 분야 종사자 (운동선수, 관련 전문가 등)	10(1.6%)	32(4.5%)	42(3.1%)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상담사, 연구원 등)	16(2.5%)	32(4.5%)	48(3.6%)
유튜버	3(0.5%)	7(1.0%)	10(0.7%)
일반 시청자	2(0.3%)	0(0.0%)	2(0.1%)
무직	6(0.9%)	2(0.3%)	8(0.6%)
모름	227(35.7%)	176(24.7%)	403(29.9%)
기타	29(4.6%)	33(4.6%)	62(4.6%)
합계	635(100.0%)	712(100.0%)	1,347(100.0%)

3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 사례는 6건, 성차별 사례는 42건 발견하였다. 성차별적 사례는 젠더 고정관념을 강조하고(20건), 외모 지상주의를 강화(13건)하는 내용이 많았다.

표8 _____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6	성차별적 내용	젠더 고정관념 조장	20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3	
		외모에 대한 평가	13	
		성적 대상화	2	
		기타	4	
합계	6	합계	42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성평등적 내용은 정보 전달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특징을 젠더 관점에서 구현하는 사례였다. <탐나는 TV>는 '젠더 갈등' 프레임이 재생산하는 언론의 구조적인 배경, 문제점, 현상을 분석하며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시사·교양 프로그램 및 여타의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성비 불균형, 성별에 따라 역할을 이분화 하는 문제점 등에서 벗어나 성평등적 변화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KBS 질문하는 기자들Q	07/25 (15회)	'젠더 갈등' 프레임이 재생산하는 언론의 구조적인 배경, 문제점, 현상을 분석한다. 방송은 '젠더 갈등'을 다루었던 한 기사의 사례가 완전히 허구였음을 밝히며 시작된다. 이러한 오보가 팩트 체크 없이 퍼나르기 식의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비롯됐으며, 한국 사회의 뉴스 생산으로 관행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문제는 클릭 경쟁에 내몰린 기자, 높은 조회수를 유도하는 기사를 선정하는 언론사 및 디지털 저널리즘을 상업적 목적으로만 두는 환경 등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MBC 탐나는 TV	07/23 (149회)	<p>기존 방송이 비평가나 교수 등의 전문가 집단 및 프로그램 주요 진행자를 남성으로 섭외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해당 프로그램은 비평가와 교수 등의 전문가들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프로그램 전반을 이끌어가는 진행자의 역할도 여성 언론인에게 맡기는 등 비교적 상이한 구성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 평가원으로 섭외된 남성 비평가 한 명도 기존에 성평등한 인식과 분석을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프로그램 취지에 부합하는 패널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p> 
SBS 열린TV 시청자 세상	07/22 (1167회)	<p>같은 방송사의 타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출연자의 첫 골프 라운딩에 대해 '머리를 올려줬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지적한다. '머리를 올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 기생이 정식 기생이 되며 머리에 쪽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차취를 어원으로 하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으로 부적절하게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공중파 방송이 해당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을 성평등적 기준에서 검토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p> 
JTBC 다채로운 아침	07/22 (32회)	<p>"저는 지금 싱글맘 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 저도 성장하고 있는 과정을 스스로없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김OO도 좋지만, 또 배우 김OO으로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그런 성취감도 많이 맛보고 싶어요."</p> <p>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연예인들을 소개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p>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p>로서 아이뿐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도 대중에게 보이고 싶다는 이야기에서 부정적 인식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강한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인 배우로서 성취감을 얻고 싶다고 하는 모습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p> 

2 성차별적 내용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한편 성 차별적 양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특성을 규정하며 젠더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장면들, '동안' '날씬한 몸매'와 같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특성들을 강조하는 장면들, 여성의 신체를 관음적으로 조망하는 성적 대상화, 성별 권력 관계에 의한 성적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장면들이 이에 속한다.

① 젠더(성별) 고정관념 조장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다른 장르에 비해 일반 시민들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젠더고정관념이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디어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전제하는 발언이나 성별에 따라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에 지속적 노출될 때, 성차별적인 가치기준은 일상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그리고 시민들의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한 말과 행동이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번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가사를 여성의 몫으로 전제하거나, 부부 간 가부장적 위계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KBS1 신장개업 운동맛집	08/18 (1회)	<p>“삼촌들 마음 훔치러 온 라이징 스타” “에나 효과 -상큼한 에너지 충전”</p> <p>여성 아이들이 처음 등장하자 화면에서는 “삼촌들 마음 훔치러 온” “상큼한 에너지” 등의 수식으로 여성 아이들 멤버를 표현한다. 이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진행자라는 역할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수식어다. 어린 여성 아이들 멤버가 등장할 때마다 “삼촌들/오빠들 마음 훔치러 온” “상큼한”과 같은 수식어가 자주 쓰이고 있다. 이는 여성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표현이기도 하며 동시에 여성 아이들의 프로그램 내 역할을 “활기 있고” “애교 많으며” “사랑스러운”과 같은 고정된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젠더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p> 
KBS1 시사기획 창	07/18 (338회)	<p>‘청년’을 주제로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청년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4명의 전문가 중 3명은 중년 남성이며, 1명만이 여성 전문가다. 세 명의 중년 남성 전문가의 발언은 꾸준히 인용되는 반면 나머지 한 명의 여성 전문가는 전체 방송 60분 중 40분이 넘는 시점에야 비로소 발언한다. 해당 발언 또한 청년들 사이의 ‘젠더 갈등’에 대한 간략한 언급으로 한정되어 발언 비중에 차이를 드러낸다.</p> 
SBS 살맛나는 오늘	07/20 (320회)	<p>한 여성 출연자가 입어본 옷 중 하나가 ‘무서운 시어머니 룩’이라며 다른 출연자가 농담한다. 그러자 여성은 ‘무서운 시어머니’를 재현하고자 뺨 때리는 시늉을 하며 여성 간의 갈등 중 하나인 고부갈등을 희화화한다. 이는 고부갈등을 일반화하여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p>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JTBC 뉴체인지	07/21 (8회)	<p>부부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엄마인 여성은 두부나 채소 등 건강식 위주로 구매한다. 아빠인 남성은 여성이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라면을 사서 트렁크 구석에 숨겨둔다. 숨겨둔 라면을 발견한 여성이 화를 내자 억울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남성을 장난스럽고 미성숙한 존재로 그리는 동시에 정당화하는 연출은 남성의 책임을 축소해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낳을 수 있다. 이후 집에 돌아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성이 주방에서 분주히 일하는 동안 남성은 의자에 편히 앉아 먹고 싶은 얘기만 얘기한다. 이 역시 여성만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p>  
TV 조선 팡팡터지는 정보쇼 알맹이	07/25 (135회)	<p>“나잇살도 찌고 젊었을 때 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유지가 되더라고요.”</p> <p>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신체의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본 장면에서는 ‘건강 관리’보다도 ‘몸매 관리’를 더 강조하여 여성은 아름다움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p>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TV 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07/20 (207회)	<p>“(딸에게 마당 청소를 시키며) 이렇게 해서 시집 가겠어? 시집 가면 이거 네가 다 해야되는데.”</p> <p>남성 출연자가 자신의 딸에게 마당 청소를 시켰으나, 딸이 제대로 청소하지 않자 한 말이다. 결혼한 여성이 가사의 책임을 전담한다는 고정관념을 전제로, 다양한 가사분담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다.</p> 
TV 조선 엄마의 봄날	07/25 (306회)	<p>“(남편이 아내에게)사람 왔으니깐 소주 한 잔 하게 가서 살아 와. 돼지고기 있으면 주물럭 만들어 와. 양념한 거 볶아서. 가 오리짬 좀 해와 봐!”</p> <p>“(내레이션) 말은 그렇게 해도 안 해줄 수 있나요.”</p> <p>남편이 일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당연한 듯 자신의 술상을 차리라고 하는 모습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과 친구의 술상을 차릴 것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함으로써 집안일은 아내의 역할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 부부는 동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내가 남편의 밥을 차려주는 등의 집안일과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일에 불만을 토로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레이션은 “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여성이 남편의 수발을 들어주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결국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p> 
채널A 황금나침반	07/21 (266회)	<p>“이제 결혼하시면 가장이 되시잖아요? 예비신부님과 다복하게 사실 일만 남았습니다.”</p> <p>진행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 곧 ‘가장’이라고 호칭한다. 가정의 자산 관리를 이야기하며 재정 관리 영역의 권한과 책임이 남성에게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예비부부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신랑을 ‘가장’으로 호명하며 전형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다.</p>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p>② 외모에 대한 평가</p>		
<p>건강을 주제로 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마른 몸’을 곧 ‘건강한 몸’으로 전제하고, 비만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강조해 희화화하는 사례들을 발견했다.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노화를 부정적으로 묘사해 불안을 부추기거나, 특정 외모와 체형을 정형화된 미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외모의 기준이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방송에서 외모를 언급하는 발언에 주의가 필요하다.</p>		
KBS1 6시 내고향	07/22 (7331회)	<p>“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예뻐요?”</p> <p>한 상인이 여성 유튜버의 팬이라고 말하면서 인사하자, 남성 개그맨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예뻐요?”라고 묻는다. 여성 유튜버의 여러 특징들을 고려하지 않고 외적인 조건이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p> 
JTBC 다채로운 아침	07/22 (32회)	<p>“무려 11kg을 감량! 몰라보게 날씬해진 모습으로 든든한 지원군 아들과 함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p> <p>촬영을 위해 배우가 11kg를 감량했다면서 “몰라보게 날씬해진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여성의 다양한 체형을 존중하지 않고 마른 몸만을 칭송하는 외모지상주의적 발언이다.</p>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TV 조선 팡팡터지는 정보쇼 알맹이	07/25 (135회)	<p>“23인치 개미허리의 주인공, ○○○씨의 독소 빼는 방법 지금 만나 보시죠.”</p> <p>건강관리 방송에서 게스트의 허리 사이즈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외모를 평가하고 있다. 개인의 신체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체형을 지향해야 할 기준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p> 
채널A 닥터지바코	07/24 (354화)	<p>“여심을 한 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중쇄지방산에는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CLA성분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p> <p>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발언이다. 여성에게 날씬한 몸매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특정한 미의 잣대로 평가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여성이 다이어트로 몸매를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p>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MBN 대한민국1%건강청문회	07/25 (23회)	<p>“여성의 평생 숙제 다이어트! 그런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살 찌는 부위가 허락된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엉덩이!”</p> <p>이 프로그램의 전체 주제는 엉덩이 근육이 노년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반에 다이어트를 여성의 평생 숙제라고 표현하면서 날씬한 몸매를 곧 정상적인 몸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때 유일하게 살이 찌도 괜찮다고 ‘허락’된 부위가 엉덩이이면서 가져온 이미지에는 날씬한 몸매가 극대화된 젊은 여성 몸이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성차별적이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엉덩이 살 찌움’은 결국 날씬한 여성의 몸매의 형태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p> 
JTBC 다채로운 아침	07/22 (32회)	<p>“드라마에서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녀. 외모만 보면 아이와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탤런트 ○○○씨가 당당한 솔로 육아 스타 3위에 올랐습니다.”</p> <p>단순 외모 평가에서 더 나아가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아름답지 못한 존재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포함된 내레이션이다.</p> 
채널A 내 몸을 살리는 발견 유레카	07/25 (25회)	<p>출연자의 아동 제자를 섭외해 외모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나이가 53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쁘다’며 여성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p>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TV 조선 건강면세점	07/25 (61화)	<p>“얼굴도 이쁘시지만 뇌도 참 이쁘시다. 뇌의 미인이라고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뇌섹녀시네요”</p> <p>치매 위험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예쁘다”, “뇌섹녀(뇌가 섹시하다)”와 같은 외모 평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치매 위험이 있는 경우는 “추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p> <p>여성 배우의 건강한 식습관을 소개하기 전에, 배우가 건강하게 몸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낮은 몸무게와 날씬한 몸선이 드러나는 사진을 보여준다. “빈틈없는 그녀의 건강&노후관리”라고 표현 하지만 결국은 여성이 나이 든 상태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음을 ‘건강’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 지표는 ‘날씬함’과 외모 관리에 있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다.</p> 

채널A 산전수전여고동창생	07/25 (36화)	<p>“음식 하나로 예뻐지는 비결 공개! 콜라겐과 함께하는 밥상이라면 먹을수록 예뻐지는 것은 시간 문제!”</p> <p>척추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관리를 시작한 출연자는 그 효과로 생체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5-10세 젊어지게 되었다. 이때 내레이션은 계속해서 출연자를 “초동안 미녀”, “피부 미녀”로 소개한다. 그의 운동과 식단관리를 “예뻐지기 위한” 과정으로 소개한다. 여성의 건강은 언제나 외적인 아름다움, 동안 등과 같은 보이는 외모에 기반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p> 
------------------	-------------	---

③
성적 대상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색적인 사건의 소개라는 명목으로 선정적인 화면과 내용을 방송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카메라가 ‘취재’라는 명분으로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관음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발견했다. 흐리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여성의 신체가 실루엣으로 보이며 숨어서 보는 듯한 관음적 장면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재현이다.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SBS 궁금한 이야기 Y	07/30 (553화)	<p>“참 꼼꼼히 몸을 씻는 여자 때문에 보기 민망한 신체 부위들이 자꾸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p> <p>공원 음수대에서 몇 년째 몸을 씻는다는 여성을 취재했다. 모두가 이용해야 할 음수대를 개인 시설처럼 사용하는 여성의 행동은 잘못되었으나 반나체인 여성의 모습을 사전 허가 없이 촬영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기 민망한 신체 부위들이 자꾸만 노출되고 있다’는 내레이션으로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좌측 상단에도 “혈벗은 채 활보하는 그녀의 위태로운 외출”이라는 제목을 사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p> 

④
성적괴롭힘 · 젠더 폭력 정당화

젠더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미디어의 폭력 재현 문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의 젠더폭력이 무비판적으로 재현되거나, 젠더 기반 폭력을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것’ ‘자녀를 위해 참아야 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발언, 전형적인 피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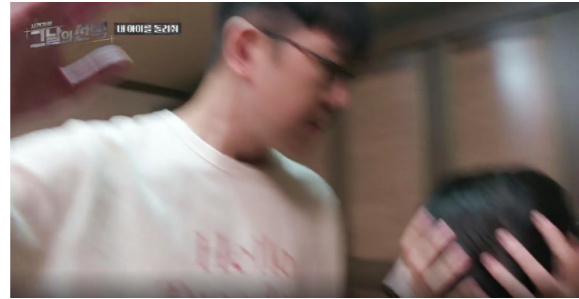
방송사 /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MBN 사건기록, 그날의 선택	07/27 (1회)	<p>“사실 얼마 전부터 정아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살림에서 손을 떼 버렸고, 식당 일을 핑계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는데요.”</p> <p>“오랜 세월 부부로 어렵게 딸까지 낳고 살았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p> <p>해당 프로그램은 무적이 된 남편과 사이비 종교 단체에 열중하고 있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가사 노동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살림을 하지 않아도 허용적인 반면 여성에게는 살림의 책임을 묻고 있다. 나아가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진행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을 ‘부부싸움’으로 명명하면서, 이것이 아이에게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동학대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다.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잘 살아볼 수 없었을까요?”와 같은 내레이션은 아이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여성이 폭력을 인내하고 참아</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자(회차)

분석

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가정 내 여성 폭력은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사소하게 여겨진다. 방송에서 아내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기에 저러한 폭력이 당연하다는 관점은 젠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



[나가며]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을 조명하는 내용에 예능 형식을 결합한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시사·교양 방송은 드라마·예능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더욱 몰두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젠더폭력 사건을 자극적으로 재현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관음적으로 조망하며 성별 위계에 의한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었다. 가정 내 젠더폭력을 문제의식 없이 재현하거나, 폭력을 ‘여성이 마땅히 감내하는 것’ ‘자녀를 위해 참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발언, 전형적인 피해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방송심의규정⁵⁾에 어긋나며, 젠더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

더불어 젠더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재생산하는 사례들도 발견했다. 그중 다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건강한 여성의 몸’을 ‘마른 몸’ ‘동안’ 등의 특성으로 강조하고, ‘건강식’ ‘장수’ ‘미용’ ‘젊음’ ‘활기’ 등을 주제로 삼아 여성의 건강을 미용, 다이어트, 전형적인 신체 사이즈 등으로 연결하며 젠더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있었다. 몸매와 노화를 관리하는 것, 특히 그것을 여성의 필수적인 과업으로 것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담은 발언 역시, 비만인을 희화화 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에서 정형화된 외모의 기준을 반복적으로 강조할 때, 이는 대중에게 당연한 규범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이 젠더에 관해 왜곡된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성평등적인 프로그램도 확인하였다. <다채로운 아침, 32회>(JTBC), <열린 TV 시청자 세상, 1167회>(SBS), <탐나는 TV, 109, 149회>(MBC)에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및 여타의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성비 불균형, 성별에 따른 담당 역할에 따른 문제점들에서 벗어난 모습을 담고 있었다. 여성 기자와 전문가들의 출연이 눈에 띄고 늘고 있으며 젠더 이슈를 다루는 출연자들의 문제의식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민사회 전반의 성인지 의식 향상과 더불어, 오랜 시간에 걸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룬 변화이다. 무엇보다도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방송 제작진들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책임도 크다. 외모에 대한 언급, 젠더폭력 재현이 발생시키는 성차별에 대한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방송 출연자와 시민 등의 일상과 언어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이 방송에서 당연한 것으로 재현되지 않도록 편집과정에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욱 변화된 방송으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해서는 안된다. <방송심의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시사·교양 프로그램

1. 모니터활동가 :

2. 내용 분석

1) 성평등적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 캡처사진, 해당멘트, 분석)

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젠더(성별) 고정관념을 조장				
성적괴롭힘·젠더폭력 정당화				
외모에 대한 평가				
성적 대상화				
기타				

3. 종합의견

*이전 보고서에 드러나지 않았던 성차별적 경향성이 보이거나, 주요하게 분석하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내용 등 기술

성평등적 내용 :

주체성, 현실 반영성, 대안성, 다양성을 중심으로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가?
-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을 과장되거나 회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의 능동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여성이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제시하는가?
- 성역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역할을 표현하고 있는가?
(남성의 가사 노동은 단순 등장으로 포함시키기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포함시키도록. ex. 남성의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시혜적이라는 식으로 그려질 경우, 단발적이고 이벤트 성의 남성 육아를 보여주는 경우, 같이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여성에게 더 큰 역할이 부여되는 경우 등은 다양한 역할로 표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가족형태 다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회화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성차별적 내용

1. 젠더(성별)고정관념을 조장

- 여성성/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여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는가?
(ex. 김치녀, 된장녀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 능력 없는 남자를 폄하하는 경우, 여성은 분홍/ 남성은 파랑의 이분법적 색 구도를 보여주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자리나 위치를 구분하여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 여아에게는 '예쁘다', 남아에게는 '멋지다'고 칭찬하는 경우)
- 특정 역할에서 성비의 수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ex. 집안일을 여성만 하는 경우, 운전하는 모습은 남성만 보여주는 경우, 전문직 종사자로서 남성만 등장하는 경우)
- 남성 중심적 성규범(강간통념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ex. 여성은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경우, 남성의 성욕은 자연스럽고 조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 여성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 남성들끼리 서로의 연애 경험이나 성경험을 공유하거나 옹호하는 경우)
-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ex. 로맨스 상황에서 남성이 위기상황의 여성을 구원해주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경우, 부부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한쪽이 복종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강요하는 경우, * 건강 주스를 만들고 밥상을 차리며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여성)

2. 성적 괴롭힘·성폭력 정당화

- 방송은 가정폭력, 성적괴롭힘, 젠더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화해 그리고 있는가?
-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와 방청객에 대한 성적괴롭힘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 방송은 가정폭력, 성적괴롭힘, 성폭력을 불필요하게 노골적으로 전시키고 있는가?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로맨스로 보이게 하는가?
(ex. 손목 낚아채기, 끌고 가기, 벽치기 키스, 싸우다가 키스하기, 거절해도 계속 대쉬하기 등)



3. 외모에 대한 평가

-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가?
(ex.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유머로 혹은 긍정적으로 소비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 여성의 외모와 젊음에 가치를 두는가?
(ex. 20대 여성을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제시, 노화를 부정적이고 혐오의 대상으로 표현)
- 여성 건강을 다이어트에 국한하여 다루는가?

4. 성적대상화

- 카메라의 구도나 움직임이 여성이나 남성의 신체를 분절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만을 부각하여 전시하는가?
-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가?
- 여성에 대해 침해 가능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가?

5. 기타

-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남성과 여성이 출연하면 무조건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로 규정하는가?
- 방송은 00녀와 같은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가족 다양성 지표

- 방송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ex. 4인가족을 정상가족으로 전제, 비하/부정적인 언어사용 : 후레자식, 편모/편부가정, 결손가정 등)
- 다양한 가족을 시청률을 위한 흥미 위주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가?
- 다양한 가족에 관한 정형화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ex.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일탈/방황/부적응자로 묘사, 한부모가정의 양육자를 여성으로 한정, 여성한부모가정이 남성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 정상가족이 된 것을 행복한 결말로 표현, 남성과 여성이 출연하면 무조건 이성애적 로맨스 관계로 규정)
- 다양한 가족에 관한 배제와 낙인을 강화하는가?
- 정형적 가족을 완성으로 묘사하고, 다양한 가족을 열등하거나 불안정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 연애/결혼/출산을 당연한 생애 과업으로 전제하여 표현하는가?
- 가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미화하고 있는가?
(ex. 가부장제, 가족구성원의 무조건적 희생, 집단을 구성원보다 중시, 자녀/아내를 소유물로 취급, 이성애 이데올로기)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편집
최 봄 · 김예리 · 이지은
서울YWCA 여성운동국

감수
홍지아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발행처
서울YWCA

협력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0)

시사·교양 프로그램

2021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 분석 보고서